

# 수하물 안내·간편결제... 항공업계,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수하물 알림 서비스 확대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범위 확장  
진에어 스마일 페이로 결제 편의성 ↑  
플라이강원 신개념 '무제한 항공권'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치열한 서비스 확대 경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6502만7063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8%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 줄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국내 공항 이용객은 전월 대비 15%가량 감소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고시한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313만8757명으로 전년 동월(1345만302명) 대비해서도 약 76.7% 줄었다.



한산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이처럼 항공 여객 시장 내 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자 국내 항공업계는 점차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객이 없는 것은 물론 코로나에 따른 락다운(국가 봉쇄) 등으로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노선 차별화 대신 서비스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제고하

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해외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유럽, 미주, 대양주 등 15개 노선에 대해 '수하물 탑재 안내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는 고객이 항공기 탑승 시점에 자신의 위탁 수하물이 항공기에 잘 실렸는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첫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뉴욕, 델러스, 밴쿠버 등 미주 출발 6개 노선에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으로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공항 이용객들이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3일과 14일, 21일, 28일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스마트움과 이코노미는 각각 5만 마일, 1만 5000마일 공제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나는 올 6월까지 라운지 이용 고객 범위를 확대해 실버 회원도 마일리지 사용에 동반 1인까지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는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진

에어는 지난 3일부터 국내 항공사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 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 페이는 고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와 연동해 6자리 비밀번호 또는 지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진에어는 이미 2015년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 도입해왔다. 특히 지난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 이상 증가하며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신개념 항공권을 또 한번 내놨다. 이른바 무제한 항공권인 '인피니티 티켓'은 올해까지 구매 금액 내에서 국내선 이용이 탑승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가능하다. 인피니티 티켓은 구매 금액별로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6가지 종류로 나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전 임원에 신발 전달

# “호시우보 정신으로 위기극복 함께 달려야”

(虎視牛步)

사회적기업 '모어덴'서 신발 제조  
그린벨런스 2030 완성 메시지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앞서 달려야'는 의미로 SK이노베이션 계열 전 임원에게 호시우보(虎視牛步) 정신을 담은 작지만 의미있는 신발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8일 호시우보가 호랑이와 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와 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김준 총괄사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로 'New SK이노베이션'을 만들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변화의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이어 사회적기업 '모어덴'의 신발을 전하며 “2021년은 치명적인 생존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해다.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호시우보'의 정신으로 무장한 리더가 주축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제품을 통한 그린벨런스 2030 완성을 위해 올해도 함

께 뛰자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그간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적극 지원하며 친환경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육성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모어덴'에서 만든 스니커즈는 마찰, 온도, 습도에 강한 자동차 시트 가죽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제품이다. 버려진 소재에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 만든 것이다.

특히 내구성이 강한 자동차 시트 가죽을 활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제품으로 신발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환경적 가치도 높다.

/김수지 기자

## 삼성전자, 뉴 그랑데 AI 세탁·건조기 출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

그랑데 AI 세탁기가 더 업그레이드됐다.

삼성전자는 8일부터 뉴 그랑데 AI 세탁·건조기를 예약판매하고 3월 초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조기는 17kg에 이어 국내 최대 용량 19kg 제품으로 출시된다. 세탁기는 최대 용량인 24kg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도 달성했다.

뉴 그랑데 AI는 플랫폼 디자인과 심리스 스타일로 공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전면 도어와 컨트롤 패널은 글래스 소재를 적용했다. 직렬 설치했을 때 높이를 에어드레서와 맞춰 의류관리기 통일감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세탁기는 빨래 무게에 따라 세제와 유연제를 10단계로 정밀하게 구분해 투입할 수 있도록 '세제 자동 투입' 기능을 강화했고, 옷감의 종류와 오염도 등에 따라 최적의 코스를 제안하는 'AI 맞춤세탁' 기능도 업그레이드했다. 9kg 이상 세탁물에는 '워터샷'을 쏘



뉴 그랑데 AI 세탁건조기. /삼성전자

소요 시간을 약 20% 단축시켜줄 수도 있다.

의류 관리 서비스 '스마트싱스 클로딩 케어'도 3월 중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싱스 앱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드레서를 연동해 적합한 의류 관리를 추천해주고 원하는 코스도 사용 가능케 해준다.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관심 의류, 보유 모델 조합에 따라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주시기도 한다.

/김재용 기자 juk@

## 캐논, RF·EF렌즈 1억5000만대 생산

초음파모터 등 혁신기술 지속적용  
“사진·영상문화 활성화 기여 기대”

캐논이 지난해 RF와 EF 렌즈를 누적 1억5000만대 생산했다고 8일 밝혔다.

렌즈 시장 1위 기업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 캐논은 1987년 SLG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EF 렌즈를 선보인 이후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4곳에서 렌즈를 생산하고 있다.

EF 렌즈는 1995년 1000만대, 2009년 5000만대에 이어 2014년 4월 세계 최초 1억대 생산을 달성했다.

지금까지 제조한 EF렌즈와 RF렌즈

는 길이로는 약 1만2450km에 달한다. 기술력도 꾸준히 진화했다.

초음파모터와 손떨림 보정 기술, 다중 회절 광학 소자 등 혁신 기술을 채용해왔다. 라인업은 118종에 달한다.

캐논은 “앞으로도 사용자를 위해 신제품 렌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사진 표현의 영역을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 더욱 정교한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캐논의 다양한 렌즈군은 초보자부터 하이아마추어, 전문가까지 사진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진과 영상 문화의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 휘센 미리구매 대축제

신형 구매고객 캐시백 등 혜택

LG전자가 신형 에어컨을 미리구매하는 고객에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LG전자는 3월 31일까지 LG베스트샵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2021 LG 휘센 미리 구매 대축제'를 진행하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캐시백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2021년 휘센 타워 구매 고객에는 최대 50만원, 듀얼 에어컨 인기모델도 모델별로 최대 5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 LG, 새로운 그래픽 모터프 공개

디지털 환경 최적화, 온·오프 활용

LG가 얼굴에 생동감을 더했다.

LG는 새로운 그래픽 모터프를 공개해 8일 공개했다.

그래픽 모터프는 로고 외에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다. 컬러나 도형, 패턴 등 시각적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준다.

새로운 모터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고객 접점에서 LG 브랜드를 역동적으로 나타낸다.

기존 심볼마크 안에 L과 G 형태를 화

면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배치하고 메시지와 연계해 LG가 전달하는 메시지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준다.

컬러도 레드와 그레이로 표현하는 LG 로고에 더해 10가지로 확대하고 2가지 바탕 패턴 디자인을 조합할 수 있게 해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했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해 애니메이션 효과도 적용했다.

LG는 앞으로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모터프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